



허정림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jr-huh@hanmail.net)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

전설이 흐르는 한강 이야기

한강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까?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골에 있는 검룡소에서 시작한다. 검룡소는 석회로 된 큰 돌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5천여 톤이나 되는데, 둘레 20여 미터에 깊이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하루 수천 톤의 수량을 내뿜는다는 검룡소의 물은 발원지답게 무더운 여름에도 물이 얼거나 찬지 손발을 담그고 1분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맑고도 차다고 한다. 검룡소는 오랜 세월 동안 흐른 물에 깊이 1~1.5미터, 넓이 1~2미터의 암반이 구불구불 패여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검룡의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석회암반으로 용트림을 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렇게 시작된 한강은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앞까지 흐르는데 임진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한강의 끝이다. 보구곶리에서 서해에 이르기까지를 할아버지의 강, 조상의 강이란 뜻



으로 '조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분단 이후부터 조강이란 이름은 잊혀지고 지금은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

에서 만나는 곳을 한강의 하구로 본다.

한강은 한가람(大江)이라고도 불린다. 7백여 개의 물줄기가 합쳐진 이름 그대로 큰 강이다. 한반도의 정기를 이어주고 남북을 아우르는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젖줄이며 상징이다.

한강은 북한의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과 남한의 태백 금대산에서부터 온 남한강이 하나가 된 강이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 양수리는 두물머리(二水頭)라 하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법의 메카이기도 하다. 한민족은 민족이 하나이듯 한강은 두 개의 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민족화합의 강인 것이다.

검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검룡소



태백은 크고 밝은 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백두대간의 중추이자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한민족의 시원지라 이른다.

용이 되어 승천하고픈 소망이 간절했던 서해바다의 이무기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태백의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산중턱인 금대봉골까지 다다른다. 그러나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최적지라 여겼던 그 이무기는 지금도 용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한때 승천할 때까지 조신해야 할 이무기가 인근 마을의 소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여 주민들이 검룡소를 메워버린 적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지금도 못 아래 압반에는 이무기의 발톱 자국이라 여겨지는 갈퀴에 굽힌 듯한 자국이 선연하다고 한다. 아마도 용이 되려고 이 못에 오르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국인지도 모른다. 과연 검룡소의 이무기가 언제쯤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될까! 아마도 포효하는 이무기의 처절한 몸부림과 용이 되고자하는 갈망이 이 샘을 힘차게 용솟음하게 하는 원동력일지니 용이 되지 않음이 더 나을 수도 있으리라. 이는 한강을 누리는 자로서의 이기심일까?

전설이 흐르는 한강

한강은 전설이 흐른다. 도미 아내의 정절이 깃든 도미진(都彌津)이라 불리던 한강의 나루터가 있다. 이곳이 <삼국사기>가 전하는 도미나루 전설의 현장으로 한 백제 여인의 끈은 정절이 새겨진 곳이다.

백제 제4대 개루왕 때 절세미인 아내를 둔 도미라는 한 평범한 백성이 살았다. 그의 아내는 미모뿐만 아니라 행실도 곧고 절개도 굳은 여인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은 도미 부인을 탐내게 되었다. 남편 도미를 적당한 핑계로 대궐에 억류시킨 후 자신을 빼닮은 신하로 하여금 왕으로 변장시켜 도미의 집으로 보낸 것이다.

"짐은 일찍이 그대가 미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대 남편과 내기 장기를 두어 짐이 이겼노라. 이제 그대는 짐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장 대궐로 들어와 수청을 들지어다."

가짜 왕은 이런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도미 처를 범하려 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그녀의 수완도 보통이 아니었다. 가짜 왕을 먼저 방에 들게 한 후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그녀 역시 자신을 닮은 여종으로 하여금 가짜 왕의 시중을 들게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안 왕은 크게 노하여 악독한 보복을

가한다.

결국 남편 도미에게 누명을 씌워 그 별로 두 눈을 뺀 다음 배에 태워 멀리 귀양을 보내고, 그 아내는 대궐로 끌고 와서 강제 로 욕을 보이며 한 것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도미의 처는 기지를 발휘한다. 몸에 달거리가 있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틈을 엿보아 대궐을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현명한 기지로 도망쳐 나온 그녀는 배알미리 나루터에서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 남편을 찾아간다.

한편 왕으로부터 두 눈을 잃은 채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해 왔던 도미는 아내를 만나자 허염없는 눈물을 쏟으며 기뻐한다. 이들은 당시의 국경선인 한강을 건넜으나 안심할 수 없었다. 결국 백제왕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부부는 다시 산산이라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곳에 몸을 숨긴다. 당시 백제와 적대관계에 있는 고구려 주민들의 대우는 극진했다. 고구려인들은 이들의 처치를 딱하게 여겨 음식과 의복은 물론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며 이들 부부를 편히 살게 했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기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백제 개루왕은 성품이 온순하여 선정을 베푸는 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설은 다른 시기의 것이거나, 혹은 고구려에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결국 한강의 고고한 자태로 변함없이 흐르는 것에 대한 경외심은 왕조차도 전설 속 악인이 되어서 기꺼이 아름다운의 희생양 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강의 슬픈 전설

태백의 기운으로 한민족의 상징인 한강! 게다가 아름다운 전설이 살아 흐르는 한강을 남겨 준 우리네 조상에 비해 과연 우리는 다음세대들에게 어떤 한강을 줄 것인가? 88올림픽을 치르며 한강 레저를 구현한다는 미명 하에 난개발을 일삼아 자연하천의 모습을 잃어버린 전시행정의 표본물이 되지 않았던가! 내 어릴 적 팔당으로 물놀이를 가고 수영을 하면서 한강변의 버들피리를 불었던 기억은 많은 이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추억일 뿐 한강물과 함께 흥연히 흘러가 기억조차 희미할 뿐이다.

한강물에 뛰어들어 한강과 한 몸 되어 놀던 그 시절은 갔다. 자연정화의 기능을 상실하고 인공적 구조물로 들어차 버린 한강은 병들었다. 무지막지한 수중보는 물고기의 길을 잃게 만들었다. 한강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한강에서 살아온 동식물과 함께 나누어온 그들의 삶의 터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수도 한강의 젓줄인 한강은 도시의 열섬화를 줄여주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중

요한 조정자 역할을 묵묵히 해 왔다. 그런데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건축은 투기로 이어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한강은 몸살을 앓았다. 한강의 순기능인 산바람, 강바람의 길은 고층아파트가 철의 장막을 친 채, 도시를 순환시키는 바람의 길을 막아섰다. 보여주는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한강개발사업은 한강의 본래 모습을 앗아가고 기능을 왜곡하는 장애행정이었다. 다행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기의 한강을 구제해 준 백지화 선언은 그런 면에서 칭찬받을 행정이다.

한강의 수자원보호는 서울시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한국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 서울의 환경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면서 관광산업의 주춧돌과 같다. 수자원 보호와 정화작업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 각종 첨단 기술과 장비는 수자원 보호에 있어 과학적인 첨단 정화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기술의 신장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자원을 보호하는 시민인식의 향상과 바른 행정을 통한 한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의 환경보호이다.

현대 산업의 발달은 석유화합물의 부산물인 화학물질의 천국을 양산했다. 세계적으로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있음에도 2천여 종이 개발 상품화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3만 7천여

종이 유통되고 있다.



화학물질취급업체 19% 증가, 제조·수입량 43.8% 증가
국내 화학물질 유통추이(2002~2006)

이러한 20세기 단기간 개발된 화학물질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되어 자연계와 생물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령 미세한 플랑크톤이 오염되었을지라도 물고기가 먹고, 오리가 먹고 인간이 마지막 포식자가 되어 먹었을 때 먹이연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최후의 포식자인 인간이 가장 농축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오염물질을 먹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인의 생활에서 아쩔 수 없이 배출되는 화학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미세한 양의 배출일지라도 환경오염에 있어 작은 책임의 면제부란 있을 수 없다.

현대인은 산업의 발전으로 편리함과 빠름이란 대가를 몸으로 치르고 있다. 현대인이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원인으로 모르는 병마와 싸우게 되기까지 현대인은 화학물질에 의한 독소에 무방비상태이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현재 지구상에 발병하는 질병의 24%, 사망의 23%를 환경성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진료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무려 714만명에 이르렀다. 유럽에서 조사

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인 개인당 37가지의 화학물질이 혈액 속에 잔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한강을 식수원으로 마시고 있고 농작물을 키우고 낚시를 하며 한강

을 통해 섭생을 하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고 더불어 삶의 일부로 사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영화 '괴물'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우려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었다. 당시 한강에 사는 정체 모를 괴물이 출몰하여 이에 대항하는 가족애와 더불어 비리와 연류 된 사회상을 꼬집는 영화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때 단지 이 영화가 주는 재미보다 기발한 발상에 주목해 봐야 한다. 주한 미군이 몰래 한강에 방류한 포르말린이 한강에 사는 괴생물체를 만들었다는 발상은 그저 영화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이야기이다.



한강은 흐른다

전설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은 수많은 차량이 나루터 위 팔당 대교를 오가고 있다. 적어도 한강과 함께 사는 서울시민이라면 한번쯤 이 다리를 지날 때, 그 옛날 도미 처의 정절을 되새겨 봄이 어떨까?

한강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끝은 모른다. 사람마다 믿고 싶은 것이 다르겠지만 큰 바람으로 높은 태백의 정기를 받으려는 이무기의 노력이었다면 아마도 용이 되어 승천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도 이곳에 신령스런 용이 산다하여 검룡소(檢龍沼)라 불러주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태백의 기개를 담아 용트림을 하며 내뿜어 주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를 생명수로 마시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아름다운 전설로 수놓은 한강의 절개를 생각해 보면 매일 보는 한강에 대한 정겨움이 새삼

스레 느껴진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의 한강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며 유유히 흐르는 평화의 강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한강이 만들어 주는 청정한 바람과 생명수의 소중한 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한강의 특권을 소중히 하여 한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 그리하여 우리의 손주의 손주까지 전해질 멋진 이야기가 있는 한강의 전설을 우리도 만들어 보자.

한강은 서울시민의 휴식처이고 생명수이며 우리 민족의 열이 숨어있는 강이다. 우리 자신이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바로 우리 다음세대에게 물려 줄 한강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한강이 아니던가! 🌊

참고문헌

《전설이 있는 문화유적의 물의 전설》 천소영 지음, 창해